

글로벌 공략 나서는 완성차...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강화

현대차 클릭 투 바이 서비스 진행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구매 기준 평가

기아차 해외시장서 동행 캠페인
범유럽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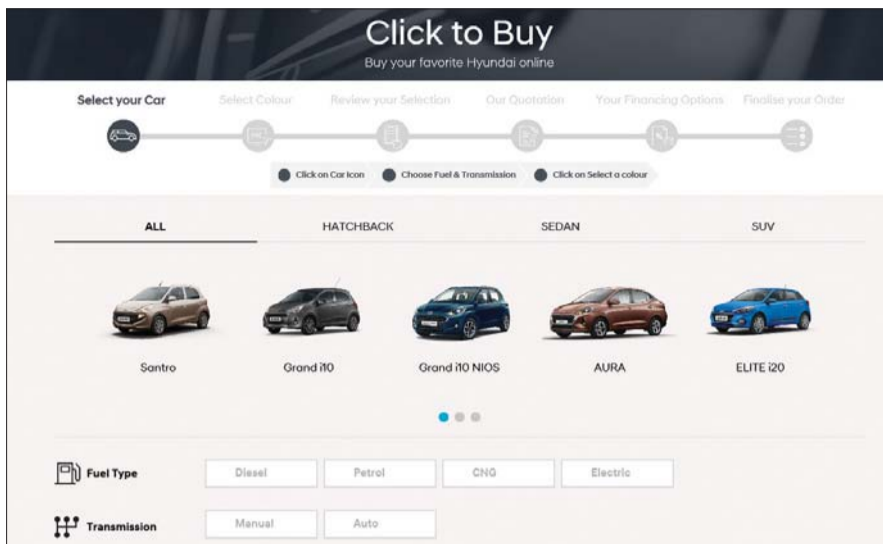
한국지엠 모기업 홈페이지 개편
차량에 자세한 소개·영상 등 제공

쌍용차 현지딜러와 온라인 소통
티볼리 가솔린 모델 온라인 출시행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상반기 판매가 부진했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의 상반기 판매량은 303만3798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386만6229대) 보다 약 21.5% 감소한 수치다.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 모두 내수 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 실적은 5개 업체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현대차 온라인 자동차 구매 서비스 '클릭 투 바이'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인도, 호주 지역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 '클릭 투 바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선보인 인도의 '클릭 투 바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의 인도 온라인 차량 구매 플랫폼

포인 '클릭 투 바이' 방문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고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도 2만 명에 달한다.

기아차는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차는 5월 중순부터 유럽을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기아차는 당신과 동행합니다(#KiaMovingWithYou)'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할부금 납입 유예, 차량 항공 서비스, 홈 딜리버리 서비스, 인터넷 시승 예약을 비롯한

지역에 맞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건기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중이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범유럽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독일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차량 구매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와 동풍얼달기아는 각각 '신안리더(마음의 평온과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와 '아이신부두안(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이라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차량 구매 후 실직, 전염병, 사고 등 고객이 처한 상황이 변하면 차량을 교환 또는 반납할 수 있는 신개념 구매 안심 프로그램이다.

한국지엠 모기업 제너럴 모터스(GM)은 북미와 남미 등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전시장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의 특징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사진과 간단한 소개 자료만 제공했다면 지금은 차량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자료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 소비자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수출 시장이 막힌 쌍용차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유럽 수출 모델인 티볼리 가솔린 1.2터보 모델을 온라인을 통해 출시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 딜러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분기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현지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매 감소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 디지털 신차 론칭을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하는 반면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 정보 등을 자세하고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2차 협력사 '상생결제' 5년만에 10배 ↑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 권장
상생협력 위해 컨설팅·자금 지원 추진

LG전자가 상생 시스템이 2차 협력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지난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금액이 2015년 첫 시행 후 5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LG전자가 1차협력사로,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 2차 협력사도 LG전자 신용도를 적용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LG전자가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가전 부품 협력사에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치는 모습. /LG전자

수 있다.

이를 이용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결제한 금액은 2015년 352억원에서 지난해 3673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2075억원에 달했다.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2차 협력

사에 지급한 금액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7.4%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에는 10%로 더 확대됐다.

LG전자는 공문과 가압절차 안내 등을 통해 1차 협력사들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협력사에 평가 시에 가점을 제공해 더 많은 2차 협력사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무이자 자금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 지원 ▲무료 교육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해외시장 나서는 'XM3'... 칠레에 첫 수출

르노삼성차 XM3 수출 선적 개시
첫 선적 물량 83대, 올해 140대 계획

르노삼성자동차가 국내 인기 차량인 'XM3'의 본격적인 수출에 돌입한다.

르노삼성은 오는 25일 프리미엄 디자인 SUV XM3의 해외 수출 선적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공장에서 생산된 XM3의 첫 수출 지역은 칠레이며 첫 선적 물량은 83대다. 르노삼성은 향후 연말까지 추가로 57대를 수출해 올해 총 140대의 XM3를 칠레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적되어 수출되는 XM3는 칠레 시장 판매를 위한 대리점 전시와 고객 시승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



르노삼성 XM3.

정이다. 르노삼성은 올해 칠레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XM3는 지난 3월 한국 시장 출시 이후 2개월만에 국내 B세그먼트 SUV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시스템

첨단방어 시스템 평가 용역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인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의 초도 운용시험평가가 지원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DIRCM은 항공기에 장착하는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MANPADS) 대응 장비로 적의 미사일 공격이 탐지되면 적외선 방해 레이저(기만 광원)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받아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신제품 6종 출시

고객 요구 맞춰 제품선택 범위 확장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 A시리즈 4종과 H시리즈 2종 등 총 6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9일 두산로보틱스에 따르면 A시리즈는 가격을 낮춰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 최고의 속도와 우수한 가속성을 구현했다. 첨단 세이프티 알고리즘을 적용해 국제 시험인증 공인기관 인티유브이슈드(TUVSUD)가 실시한 안전성능수준 평가에서 최고 레벨을 획득했다. 사람의 손재주가 필요한 섬세한 작업의 경우 정교한 힘 센서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등 공정별 요구 성능에 따른 고객의 제품 선택범위를 넓혔다.

H시리즈는 가반하중 25kg으로, 전세계에 현존하는 협동로봇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안정적으로 다루면서도 로봇의 무게



팔레타이징 작업을 수행 중인 H시리즈.

는 타사 제품의 절반 수준인 75kg에 불과하다. 6개 모든 축에 토크 센서를 탑재해 펜스 없이도 비좁은 공간이나 이동 로봇(모바일 로봇)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다양한 중량의 물품을 동시에 운반하거나 팔레타이징(물건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도 가능해 물류 및 섬유 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시리즈와 H시리즈는 이달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로드쇼'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포르쉐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전기차 특성 맞춰 트레드 패턴 적용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포르쉐 브랜드의 최초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모델인 '타이칸'에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프리미엄 스포츠'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벤투스 S1 에보3e v'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의 특성에 맞춰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로, 강력한 주행성능을 구현하면서도 무게와 소음, 회전자항 등을 최소화해 타이칸의 성능을 가감없이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엔진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에 맞춘 트레드 패턴을 적용해 노면 소음을 최소화했다.

한국타이어는 크로스오버 SUV 모델 '미칸'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통해 포르쉐와 처음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2019년 슈퍼프리미엄 SUV 모델 3세대 '카이엔'에도 공급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번 공급을 통해 포르쉐가 최초로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과도 함께 하며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